

초등 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 및 자녀교육 지원활동: 부모역량 유형에 따른 차이*

An Analysis of Latent Profiles of Parental Competence for Mothers of Third Graders: Differences in Parental Psychological Reactions and Support Activities to Education

1차원고접수: 2023.07.10. 수정원고접수: 2023.08.25. 최종게재결정: 2023.09.15.

이상은¹ · 최나야² · 김은영³

¹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²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서울
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³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Lee, Sang Eun¹

Choi, Naya²

Kim, Eunyoung³

^{1,2,3}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령중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량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착연구센터의 학부모교육참여패널 3차년도(2019)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진행하였으며 SPSS와 Mplus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부모역량을 3가지 하위 지표(양육역량, 심리적 역량, 사회적 역량)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총 5개의 집단(양육역량이 낮은 집단,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 균형적 중위 집단,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 균형적 상위 집단)이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부모역량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교육을 통한 성공 신념, 부모-자녀 동일시, 심리적 위축)은 증가하였고, 자녀교육 지원활동(학습분위기 조성, 학습지도, 생활통제, 시간통제, 교육정보 수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균형적 중위 집단'과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균형적 상위 집단'보다 '부모-자녀 동일시'가 강했고,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에서 '심리적 위축'이 가장 낮았다. '학습지도'는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과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균형적 상위 집단'은 중간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역량 유형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모역량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반응과 자녀교육 지원활동의 차이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부모역량, 양육역량, 심리적 역량, 초등학생, 자녀교육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types of parent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third graders and compare their levels of parental psychological reactions and support activities to their child's education. Latent profile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Parental Educational Involvement (PSKPEI) in 2019, which included information on 377 mothers. First, the study classified the latent profiles of parental capacity into five distinct types: low parenting competence group, low psychological competence group, medium level parental competence group, medium competence with high parenting competence group, and high-level parental competence group. Second, parents in the medium level parental competence and medium competence with the high parenting competence group exhibited higher levels of parent-child identification, while the parents in the low psychological competence 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 of psychological withdrawal. Third, study guidance was the highest in the low psychological competence group, and medium competence with high parenting competence group, but the high-level parental competence group displayed a moderate level. This study confirmed the presence of different types of parental competence among the mothers and identified variations in parental psychological reactions and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based on these competence groups.

Keywords *parental competence, parenting competence, psychological competence, primary school children, child education*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NRF-2017S1A5B8A02072579)임.

Corresponding to 최나야 (Choi, Naya)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inaya@snu.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의 교육에 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최근에 일어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은 이러한 관심의 부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교육부, 2023). 다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와 학교적응이 끝난 후인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년 진입기인 3학년이 되면서 교과군의 과목화, 수업 시간의 증가 등으로 학업부담이 증가하고 학교생활 일정이 변화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이강이, 진미정, 이재림, 김영선, 2019). 나아가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 학습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역동적인 시기로도 볼 수 있다(고정화, 2008). 이 시기에는 어머니들의 학부모 특성도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육과 관련된 행위나 교육참여 수준은 1, 2학년에 비해 감소하나(권소영, 이재림 2019; 김영선, 이강이, 이재림, 2022) 생활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장우귀, 2012). 앞에 언급된 선행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에서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교육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에 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요점을 인식하여 초등학교 중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량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 및 자녀교육 지원활동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부모역량(parental competence)이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로서의 능력으로(Gordo, Martínez-Pampliega, Elejalde & Luyten, 2020), 양육 스트레스(Jackson & Moreland, 2018), 양육 행동(신숙재, 정문자, 1998), 심리적 안녕감(이지영, 이정희, 2018)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존의 부모역량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 온 양육역량(parenting competence)

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지식, 신념, 행동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췄지만 부모역량은 양육역량을 비롯하여 부모의 심리적·사회적 역량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정계숙, 고은영, 김민아, 2020; Johnson, Berdahl, Horne, Richter & Walters, 2014). 정계숙 등(2014)은 학령기 아동의 부모역량은 유아기보다 성숙해진 자녀의 신체적, 사회·정서적, 인지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과 동시에 학업성취를 위한 교육자의 역할까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의 학업 성취압력을 느끼고 이는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지는데(안지영, 2009),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학령기는 아동의 교우관계를 비롯한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서보운, 2008)로 이 시기에 부모 또한 가족을 넘어 사회적인 이익이나 변화에 이바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학령기 아동의 부모역량은 학부모 역할 기술 습득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심리적·사회적 역량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부모역량은 하나의 단일 변인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위요소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전 연구에서는 부모역량이 자녀의 양육자 역할에 국한되어 사용됐다면(Bayot, Hernández & De Julián, 2005; Gilmore & Cuskelly, 2008) 이제는 양육활동을 넘어서 그 의미가 외연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장애아동의 부모역량은 가족관계나 사회지원 서비스와 관련되는 역량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Mohammadi 등의 연구(2020)에서는 부모역량에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확신, 어려운 육아 환경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 등을 포함했다. 박재국, 서보순과 김은라(2013)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부모역량 요소로 ‘사회적 역량’, ‘자기체계 역량’, ‘양육기반 역량’, ‘양육수행 역량’을 세분화하였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역량 척도도 확장된 부모역량을 추가하였는데 정계숙과 최은실(2013)은 부모역량 구성요인을 부모의 양육역량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심리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부모역량을 양육역량, 심리적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구분하였는데 양육역량이란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특성 및 요구에 맞춰 적절하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능력을 뜻한다. 다음으로 심리적 역량은 부모가 부모 자신이나 자기 행복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하여 심리적 건강을 유지·발달시켜 나가는 역할을 의미하며 심리적 안녕감을 기반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량은 자녀돌봄에 있어 지역사회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양육역량을 부모역량을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몇몇 선행연구에서 부모역량의 하위요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통해 부모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지금까지 부모역량의 하위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다만 일부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역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려는 시도는 이루어졌다. 김지은(2022)은 양육역량을 양육 문제의 해결적 개입과 아동의 자율성 조성이라는 두 차원의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권미나와 이진숙(2020)은 초등학교 4학년의 부모양육행동을 ‘애정상위·통제하위 집단’, ‘애정·통제 중간집단’, ‘애정·통제 상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 양상에 따른 유형화 연구도 존재하였는데 정정화, 홍예지와 이강이(2019)는 학령초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역량 ‘하위유지집단’, ‘급감소집단’ 및 ‘증상유지집단’을 도출하였다. 최지혜, 조혜령과 김영선의 연구(2022)는 초등학교 3학년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유형을 ‘감소’, ‘유지’, ‘증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 모두 부모의 역량이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양육역량을 포함한 보다 상위 개념의 부모역량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요인들을 고려하여 부모역량을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이며, 특히 부모역량이 감소하는 초등학교 중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년 진입기인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량 유형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각 유형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반응이란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심리적 태도와 정서를 의미한다(정계숙 등, 2014). 심리적 반응은 부모가 자기 삶의 방향을 추구하고, 주어진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지속적 자기성장 능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정계숙, 최은실, 2013).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 심리적 반응은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박서이, 김영, 최지수, 이강이, 2020) 및 양육 역량(최지혜, 조혜령, 김영선, 2022)과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심미옥(2003)은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학부모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자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 관심 및 자녀교육에 대한 헌신과 태도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하위요소로 부모가 스스로 자녀와 동일시하여 자녀에게 헌신하는 ‘부모-자녀 동일시’, ‘교육을 통한 성공에 대한 신념’, 자녀의 성적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 위축’으로 세분화하였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는 본격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기대와 관심이 커지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는 외국의 부모에 비해 학업적 능력을 타고난 능력이라고 보지 않고 부모의 지원과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정계숙, 고은영, 박희경, 차지량, 2014). 이에 학부모의 내면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반응이 발생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어머니가 가지는 심리적 반응의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학부모로서 어머니의 심리적인 부분과 행동적인 부분을 자세히 관찰한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예측요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자녀교육 지원활동이란 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활동(노보람, 박새롬, 박혜준, 최나야, 2020)으로 학령기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활동의 양과 질을 늘린다. 학부모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자녀교육 지원활동은 자녀의 성공적인 발달과 학업성취와 관

련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이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노보람 등, 2020). 자녀교육 지원활동은 자녀의 학업성적(이선애, 2009), 학업동기(신미성, 2015), 학교적응(노보람 등, 2020; 홍예지, 장유진, 이강이, 2021)처럼 자녀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몇몇 선행연구에서 교육신념(양연숙, 권정임, 2010), 타 학부모와의 교류(신혜진, 2011) 등이 언급되었으나 부모역량과 같이 부모 능력에 따른 지원활동 양상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부모역량의 일부인 사회적 역량(이금규, 김유정, 박유경, 이강이, 2022), 자기체계 역량(노보람 등, 2020)만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부모역량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자녀교육 지원활동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령중기 어머니가 경험하는 내·외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부모가 자녀야 할 능력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초등학교 중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량 유형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머니의 부모역량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반응과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였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변수인 사회적 역량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육역량수준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량에는 어떠한 유형이 존재하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부모역량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부모역량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구축한 학부모교육참여패널(PaSKoPEI) 3차년도(2019)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3차년도 자료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질문의 양식에 올바르게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37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부모교육참여패널은 2017년 3월에 첫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수도권 거주 어머니를 대상으로 구축된 패널자료로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학부모의 역할과 교육참여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관찰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노보람 등, 2020).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거주지역은 대도시(48.8%), 중소도

표 1.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377)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거주지역	대도시(서울, 광역시)	184 (48.8)
	중소도시(시지역)	177 (46.9)
	읍면지역(군지역)	16 (4.3)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22 (5.8)
	36-40세	190 (50.4)
	41세-45세	165 (43.8)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이하	57 (15.2)
	2~3년제 대졸	103 (27.3)
	4년제 대졸	210 (55.6)
	대학원 졸	7 (1.9)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182 (48.3)
	미취업	195 (51.7)
월 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9 (2.4)
	200-299만원	31 (8.2)
	300-399만원	97 (25.8)
	400-499만원	88 (23.3)
	500-599만원	68 (18.0)
	600만원 이상	84 (22.3)
자녀 수	1명	138 (36.6)
	2명	205 (54.4)
	3명 이상	34 (9.0)

시(46.9%), 읍면지역(4.3%)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6세 이상 40세 이하(50.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41세 이상 45세 이하(43.8%), 35세 이하(5.8%)의 순서였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55.6%), 2~3년제 대학 졸업(27.3%), 고등학교 졸업 이하(15.2%)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업주부(51.7%)가 취업모(48.3%)보다 많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600만원 이상(22.3%), 300~399만원(25.8%), 400~499만원(23.3%), 500~599만원(18.0%), 200~299만원(8.2%)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자녀 수를 살펴보면, 2자녀 가정(54.4%), 1자녀 가정(36.6%), 3자녀 가정(9.0%)의 순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부모역량

초등학교 어머니의 부모역량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참여패널 자료 중 정계숙과 최은실(2003)의 부모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역량 척도는 부모 관련 연구(노보람 등, 2020; 박하연, 김대웅, 이강이, 2022; 정정화 등, 2019)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 크게 양육역량, 심리적 역량, 그리고 사회적 역량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양육역량은 자녀의 발달적 특징과 욕구 이해 여부, 부모-자녀의 관계 이해, 건강한 부모관, 자녀의 삶과 양육방향의 목표 정하기, 인내심 갖기, 민주적 양육하기, 반응적이고 공감적 양육, 자녀 생애 진로 개발, 발달과 학습 지원 환경 제공 등의 총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27문항이다.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아이의 발달과 욕구를 더욱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더욱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한다.’, ‘나는 아이의 성장에 따라 양육(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수정해가면서 적절하게 양육한다.’, ‘나는 아이의 진로와 소질을 개발하는 방법을 실천한다.’ 등과 같다.

다음으로 심리적 역량은 총 9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어머니의 능동적 행동 여부,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

력, 삶의 방향과 목표 설정 여부, 자기 역량 개발, 지속적인 자기 성찰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나의 강점과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등과 같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량은 주변 자원 활용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절 능력, 공동체 정신, 사회 봉사활동 등이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문항이다.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내 주변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는 방법을 안다.’, ‘나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주변 환경은 내가 조성해가며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이 더욱 행복해지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나는 작은 것이라도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등과 같다.

어머니의 부모역량에 포함된 3개 요인의 모든 문항은 모두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문항묶음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부모역량이 높음을 뜻한다. 어머니 부모역량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양육역량 .92, 심리적 역량 .88, 사회적 역량 .85이다.

2)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알아보고자 심미옥(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 변인은 총 10문항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을 통한 성공 신념, 부모-자녀 동일시, 심리적 위축이 있다.

먼저, 교육을 통한 성공 신념은 연구자들이 문항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신뢰도 검사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온 문항 2개를 제외하여 5문항 중 최종적으로 3문항을 포함하여 재구성하였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전문대학을 나와도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지 믿는 여부와 성적보다는 인성이나 정서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부모-자녀 동일시는 총 4문항으로 자녀교육을 위해서 돈, 노력 등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4문항이 포함되었다. 심리적 위축은 총 3문항으로 자녀 성적으로 인하여 얼마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신념의 각 문항은 모두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심리적 반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러 개의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문항묶음을 사용하였다. 자녀교육에 대한 신념의 신뢰도 계수는 .65로 나왔으며,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교육을 통한 성공 신념은 .65, 부모-자녀 동일시는 .70, 심리적 위축은 .84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자녀교육 지원활동

어머니의 부모역량 유형에 따른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심미옥(2003)의 가정에서의 교육 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원칙도에서 문화적 경험을 제외한 총 5개의 하위요소로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우선 학습 분위기 조성은 3문항으로 자녀의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학습 분위기 조성을 측정하는 문항 예시에는 ‘자녀의 공부방을 따로 마련해준다.’, ‘자녀가 공부할 때는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등이 있다. 학습지도는 5문항으로 자녀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자녀의 학업에 관여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문항을 살펴보면 ‘시험 때는 시험공부를 따로 시킨다.’ 등이 있다. 다음으로 생활통제는 자녀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생활을 얼마나 통제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총 4문항이다. 측정 문항은 ‘공부를 하도록 자녀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는다.’ 등과 같다. 시간통제는 아동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3문항이다. 문항을 살펴보면 ‘자녀의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주고 지키도록 한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정보 수집은 자녀가 학습성취가 높아질 수 있도록 사교육이나 교육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문항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본다.’ 등이 있다.

어머니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의 각 문항은 모두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각 하위요인은 문항묶음으로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교육 지원활동이 높음을 뜻한다. 자녀교육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3로 나왔으며,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학습분위기 조성 .66, 학습지도 .51, 생활통제 .77, 시간통제 .61, 교육정보 수집 .79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량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의 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M-plus (Muthén & Muthén, Los Angeles, CA)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집단이 결정된 이후에는 어머니의 부모역량에 따른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자녀교육 지원활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분석으로 Duncan 검증을 수행하였다. 일원배치 변량분석은 SPSS(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왜도는 ± 3 미만으로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도 또한 ± 3 미만으로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

머니의 부모역량 평균은 4점대에 분포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역량이 가장 높았으며($M = 4.16, SD = .49$), 심리적 역량($M = 4.11, SD = .47$), 사회적 역량($M = 4.09, SD = .49$)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의 하위요인은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동일시($M = 3.71, SD = .73$), 교육을 통한 성공 신념($M = 3.70, SD = .63$), 심리적 위축($M = 3.14, SD = .89$)의 순으로 높았다. 어머니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은 학습 분위기 조성만 높은 평균을 유지하였고($M = 4.10, SD = .58$), 나머지 하위요인은 3점대에 분포하였다. 학습분위기 조성($M = 4.10, SD = .58$), 시간통제($M = 3.89, SD = .54$), 교육정보 수집($M = 3.41, SD = .66$), 학습지도($M = 3.31, SD = .61$), 생활통제($M = 2.95, SD = .84$)의 순으로 높았다.

2. 어머니의 부모역량 잠재프로파일 분석

초등학교 어머니의 부모역량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의 수를 2개부터 6개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며 적합도 및 유의도를 비교하였으며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잠재집단의 수가 5에 가까울수록 정보준거지수인 BIC, 그리고 SABIC 값이 작아졌다가 다시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MR검증에서는 모두 유의한 모형이 나오지 않았지만, BLRT에서는 4개의 잠재집단 외에는 모두 유의하였다. LMR과 BLRT가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 우수한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는 BLRT의 결과를 신뢰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BLRT의 결과를 따랐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Stafford, 2019).

다음으로, 집단 내 분류율이 최소 3%를 넘는지를 확인하였다. 4개의 잠재집단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최소

표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N = 377$)

	Min	Max	<i>M</i>	<i>SD</i>	Skewness	Kurtosis
부모역량						
심리적 역량	3.00	5.00	4.11	0.47	0.32	1.109
양육역량	2.00	5.00	4.16	0.49	0.18	1.152
사회적 역량	2.00	5.00	4.09	0.49	-0.06	2.148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						
교육을 통한 성공 신념	1.67	5.00	3.70	0.63	-0.32	0.081
부모-자녀 동일시	1.00	5.00	3.71	0.73	-0.96	1.905
심리적 위축	1.00	5.00	3.14	0.89	-0.44	-0.286
자녀교육 지원활동						
학습분위기 조성	2.00	5.00	4.10	0.58	-0.52	0.33
학습지도	1.20	5.00	3.31	0.61	0.14	0.44
생활통제	1.00	5.00	2.95	0.84	-0.37	-0.24
시간통제	1.67	5.00	3.89	0.54	-0.21	0.57
교육정보 수집	1.00	5.00	3.41	0.66	-0.51	0.56

표 3. 잠재집단의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N = 377$)

모형	BIC	saBIC	LMR	BLRT	잠재집단 분류율 %					
					1	2	3	4	5	6
2-group	1277.12	1245.39	.16	.00	78.5	21.4				
3-group	253.76	209.34	.86	.00	73.4	21.5	5.0			
4-group	227.40	220.38	.50	1.00	5.0	21.5	0	73.4		
5-group	116.21	46.41	.23	.00	5.0	5.3	68.2	9.3	12.2	
6-group	139.93	57.44	.45	.00	5.0	5.3	29.0	34.1	34.1	12.2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 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 = Lo-Mendell-Rubin test; BLRT = Board Level Reliability Testing.

5%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구분이 잘되는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모든 지표에서 특색없이 집단이 상·중·하 구조를 보이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BIC, SABIC 지수, BLRT 검정 결과, 집단 분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개의 집단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집단 수가 5개인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분석은 5개 집단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5개의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잠재집단을 명명하기 위해 각 집단별 교육지원 평균을 비교하였으며, 평균값과 사후분석에 근거하여 각 잠재집단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잠재집단의 평균 추정치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모역량 특성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단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집단 1은 전반적으로 부

모역량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양육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양상을 보였다. 가장 적은 19명(5.0%)의 어머니가 이 집단에 속하였으며, ‘양육역량이 낮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집단 2는 부모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심리적 역량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20명(5.3%)의 어머니가 이 집단에 포함되었다. 집단 3은 어머니 중 가장 많은 257명(68.2%)를 차지하였으며, 부모역량의 하위 요소가 모두 중간값에서 고르게 분포되었다. 집단 3은 5개의 잠재집단 중에서 모든 요소가 평균값에 있어 ‘균형적 중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4는 집단 3과 심리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에서 비슷한 평균값을 보였지만, 양육역량에서만 집단 5와 비슷한 평균값을 보여 양육역량만 높은 양상이 나타났다. 35명(9.3%)의 어머니가 이 집단에 속하며 이러한 양상을 반영하여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으로 명명

표 4.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부모역량 평균 추정치

(N = 377)

잠재프로파일 집단 유형	n(%)	심리적 역량	양육역량	사회적 역량
		M(SD)	M(SD)	M(SD)
1. 양육역량이 낮은 집단 ^a	19(5.0)	3.78(.42)	2.95(.23)	3.53(.61)
2.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 ^b	20(5.3)	3.00(.00)	4.00(.00)	3.85(.37)
3. 균형적 중위 집단 ^c	257(68.2)	4.07(.27)	4.00(.00)	4.02(.39)
4.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 ^d	35(9.3)	4.00(.00)	5.00(.00)	4.26(.44)
5. 균형적 상위 집단 ^e	46(12.2)	5.00(.00)	5.00(.00)	4.72(.46)
<i>F</i>		115.41***	184.59***	34.97***
Duncan		b < a < c, d < e	a < b < d < d, e	a, b < c < d < e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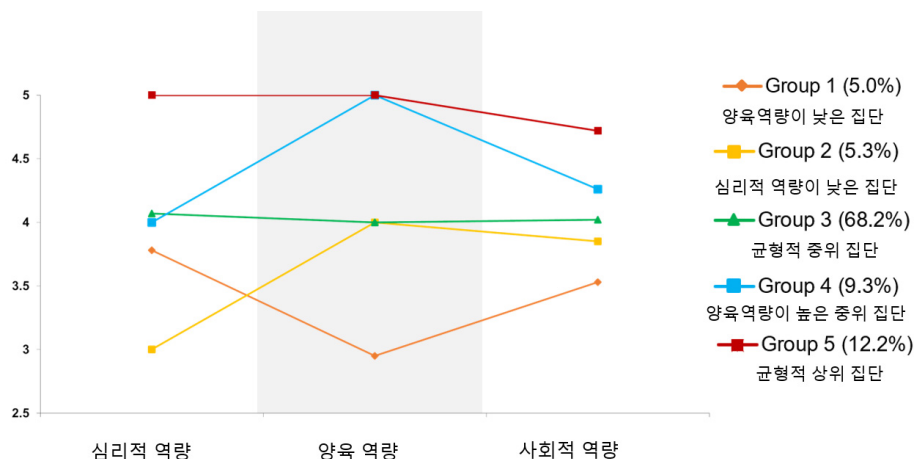


그림 1.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부모역량 특성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역량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어머니의 집단을 ‘균형적 상위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46명(12.2%)의 어머니가 이에 해당한다.

3. 어머니의 부모역량 유형에 따른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따라 분류된 부모역량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서 잠재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교육을 통한 성공 신념’을 살펴보면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과 ‘균형적 상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육을 통한 성공에 대한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교육을 통한 성공 신념’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모역량(심리적, 양육, 사회적 역량)이 높아질수록 ‘부모-자녀 동일시’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 관찰되었지만, ‘균형적 상위 집단’에서는 오히려 평

균값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M = 3.50$, $SD = 1.24$).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은 ‘부모-자녀 동일시’가 높았지만, 심리적·양육적·사회적 역량이 균형적으로 높은 집단은 오히려 ‘교육을 통한 성공 신념’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위축’에서는 양육역량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위축 또한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은 오히려 가장 낮은 심리적 위축 수준을 보였다($M = 2.65$, $SD = .93$). 즉 ‘심리적 위축’은 ‘심리적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어머니의 부모역량 유형에 따른 자녀교육 지원 차이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따라 분류된 부모역량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의 특성을 분류하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든 지원활동에서 잠재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6 참조).

표 5. 잠재 집단 유형에 따른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 비교

($N = 377$)

집단	n(%)	교육을 통한 성공 신념	부모-자녀 동일시	심리적 위축
		M(SD)	M(SD)	M(SD)
1. 양육역량이 낮은 집단 ^a	19(5.0)	3.63(.77)	3.31(.82)	3.21(.92)
2.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 ^b	20(5.3)	3.81(.52)	3.45(.51)	2.65(.93)
3. 균형적 중위 집단 ^c	257(68.2)	3.61(.59)	3.78(.59)	3.19(.78)
4.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 ^d	35(9.3)	3.93(.69)	3.85(.64)	3.05(.90)
5. 균형적 상위 집단 ^e	46(12.2)	3.97(.67)	3.50(1.24)	3.11(1.26)
<i>F</i>		4.87***	4.11**	1.86*
Duncan		a,b,c < d,e	a,b < e < c,d,	b,d,e < a,c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잠재 집단 유형에 따른 자녀교육 지원활동 비교

($N = 377$)

집단	n(%)	학습분위기 조성	학습지도	생활통제	시간통제	정보수집
		M(SD)	M(SD)	M(SD)	M(SD)	M(SD)
1. 양육역량이 낮은 집단 ^a	19(5.0)	3.96(.66)	3.01(.51)	2.46(.97)	3.53(.76)	3.07(.80)
2.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 ^b	20(5.3)	3.82(.63)	3.50(.64)	2.68(.82)	3.77(.61)	3.13(.51)
3. 균형적 중위 집단 ^c	257(68.2)	4.04(.56)	3.26(.54)	2.96(.75)	3.83(.47)	3.37(.58)
4.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 ^d	35(9.3)	4.23(.60)	3.67(.56)	2.99(.84)	4.16(.46)	3.71(.62)
5. 균형적 상위 집단 ^e	46(12.2)	4.51(.44)	3.36(.88)	3.24(1.17)	4.28(.58)	3.67(.87)
<i>F</i>		8.89***	5.39***	3.59***	13.09***	6.43***
Duncan		a,b < c,d < e	a,c < e < b,d	a,b < c,d < e	a,b < c < d,e	a,b < c < d,e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부모역량 하위영역이 높아질수록 학습 분위기 조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도에서는 ‘양육역량이 낮은 집단’($M = 3.01, SD = .51$)과 ‘균형적 중위 집단’($M = 3.26, SD = .54$)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균형적 상위 집단’($M = 3.36, SD = .88$),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M = 3.50, SD = .64$)과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M = 3.67, SD = .56$)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도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른 하위영역과 달리 비일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생활통제, 시간통제, 정보수집 모두 ‘균형적 상위 집단’,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 ‘균형적 중위 집단’,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 ‘양육역량이 낮은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균형적 상위집단’과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균형적 중위 집단’은 중간 수준을, 그리고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과 ‘양육역량이 낮은 집단’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역량 평균이 높은 집단이 지원활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어머니의 부모역량을 잠재프로파일 집단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부모역량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중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량을 분석한 결과, 5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양육역량이 낮은 집단’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부모역량을 가졌지만, 특히 양육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집단이다. 다음은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으로 심리적으로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집단이 이에 해당한다. 모든 부모역량 하위요소가 전체의 평균값이었던 ‘균형적 중위 집단’에 가장 많은 어머니가 포함되었다. 전체적인 부모역량이 중간 수준이나, 양육역량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던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도 존재하였다. 마지막 집단은 모든 부모역량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던 ‘균형적 상위 집단’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역량을 살펴볼 때 단순히 양육역량만 높고 낮음을 살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다양한 양육적·심리적·사회적 역량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학령 중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 간에도 다양한 프로파일이 존재하며, 부모역량의 하위요인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정정화 등, 2019; 최지혜 등, 2022)에서 보고하였던 부모역량의 유지, 감소, 증가 분류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초등학교 어머니의 부모역량에 따른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반응과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반응을 살펴보면 양육역량과 사회적 역량이 높아질수록 자녀교육을 통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선행연구(박새롬, 홍예지, 이강이, 2020; 이금규 등, 2022)와 맥락을 같이 하나 유형별로 수치화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역량이 낮은 집단’과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보다 ‘균형적 중위 집단’과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이 부모-자녀 동일시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균형적 상위 집단’은 중간 수준을 보였다. ‘균형적 상위 집단’은 양육·심리·사회적 역량이 모두 높아 자신과 자녀의 삶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정계숙 등의 연구(2020)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다음으로 심리적·양육적·사회적 역량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모역량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 성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위축이 감소하였다. 다만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은 심리적 위축 수준도 제일 낮게 나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번 연구에 도출된 새로운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심리적 역량이 낮을수록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

(김근혜, 2019; Ward & Lee, 2020)를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성적이나 행동에 무관심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역량이 낮을수록 본인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하므로 자녀교육에 대해 심리적으로 반응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심리적 위축은 사교육 의존도(임선영, 이강이, 2022)를 높이고 아동의 어휘력을 낮춘다(Ward & Lee, 2020)는 연구 결과가 있어 심리적 위축의 원인과 관련된 후속 연구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초등학생 둔 어머니의 부모역량에 따른 자녀교육 지원을 비교한 결과 부모역량이 높을수록 교육지원 활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양육역량이 낮은 집단’과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자녀교육 지원활동이 낮았다. 이는 부모역량이 낮은 부모가 가정에서의 교육 지원활동도 낮다는 이전 선행연구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이다(박새롬 등, 2020; 신혜진, 2011; 양연숙, 권정임, 2010).

다만 자녀의 학습지도에서는 ‘심리적 역량이 낮은 집단’과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균형적 상위 집단’은 중간 수준의 학습지도 보였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수치화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추론해보면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학습지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심리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은 가장 낮은 집단 또한 학습지도 수준이 높았으며, 오히려 상위 집단은 중간 수준에 있어 역 U자형 곡선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학부모 교육지원 유형을 비교하였던 노보람 등의 연구(2020)와 맥락을 같이하는데,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학습지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였지만, 심리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학습지도 수준이 변화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다. 나아가 ‘균형적 상위 집단’은 자녀의 학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없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이를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을 설정할 때 통계검정기법인 LMR과 BLRT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척도들이 모두 2003년에 개발된 척도로 다소 오래되었으며, 자녀교육 지원활동 중 일부 하위요인에서 신뢰도가 낮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같은 연구 방법으로 유형집단을 나누어 본 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를 할 수 있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진행하였기에 어머니의 부모역량 하위요소 특성을 평가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잠재집단의 유형 분석으로 사용되었던 양육역량과 심리적 역량을 질적연구로 탐구한다면 부모역량에 대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량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모역량을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양상을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던 부모역량이 낮은 집단의 특징을 심리적 역량의 부족과 양육기술의 부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 능력이 뛰어나지만, 심리적 역량이나 사회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부모교육에서 심리적·사회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불어 부모역량 유형에 따른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반응과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비교함으로써 부모역량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심리적·환경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부모 교육참여 연구와 부모교육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고정화 (2008).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특징 분석. *수학교육학연구*, 18(3), 283-308.
- 교육부 (2023. 8). *학생 · 교원 ·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원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세종: 교육부.
- 권미나, 이진숙 (2020).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화와 아동의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비교. *아동과 권리*, 24(2), 179-195.
<https://doi.org/10.21459/kccr.2020.24.2.179>
- 권소영, 이재림 (2019).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유형화와 유형별 일 · 생활 균형: 근로시간의 양, 근로시간대, 근로시간 유연성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7(4), 1-25. <https://doi.org/10.7466/JKHMA.2019.37.4.1>
- 김근혜 (2019). 부모의 행복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16, 1-20.
<https://doi.org/10.37918/kce.2019.05.116.1>
- 김영선, 이강이, 이재림 (2022).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육참여: 학부모교육참여패널 1-4학년 기초분석 결과. *가족정책연구*, 2(1), 65-87.
<https://doi.org/10.52946/jfp.2022.2.1.65>
- 김지은 (2022).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화와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보람, 박세롬, 박혜준, 최나야 (2020). 학령초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지원 유형: 예측요인 및 교육지원 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교 적응. *아동학회지*, 41(1), 15-28.
<https://doi.org/10.5723/kjcs.2020.41.1.15>
- 박세롬, 홍예지, 이강이 (2020).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3), 165-184.
<https://doi.org/10.15284/kjhd.2020.27.3.165>
- 박서이, 김영, 최지수, 이강이 (2020). 모의 자기체계능력 및 학부모교육 참여와 초등 2학년생의 학교적응 변화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 819-838.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819>
- 박재국, 서보순, 김은라 (2013). 장애아동 어머니의 부모역량 연구: 역량요소 구인과 인식경향. *특수교육*, 12(3), 179-202.
- 박하연, 김대웅, 이강이 (2022).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정보채널, 양육역량과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 *인간발달연구*, 29(4), 49-69.
<https://doi.org/10.15284/kjhd.2022.29.4.49>
- 서보순 (2008). 초등학교 2-6학년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발달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 *초등교육연구*, 21(3), 467-489.
- 신미성 (2015). 어머니의 학업지원이 아동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 도구적 유능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정문자 (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신혜진 (2011). 중학교 학부모 간 사회관계망이 자녀교육 관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145-169.
- 심미옥 (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안지영 (2009).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성취압력,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7(6), 255-265.
- 양연숙, 권정임 (2010). 영재학부모의 교육신념과 교육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재와 영재교육*, 9(3), 163-181.
- 이강이, 진미정, 이재림, 김영선 (2019).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교육참여 양상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학부모 정책연구센터 연구보고서.
- 이금규, 김유정, 박유경, 이강이 (2022).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간 관계에서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9(3), 163-180. <https://doi.org/10.15284/kjhd.2022.29.3.163>
- 이선애 (2009). 가족자원 및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1), 5-24.
- 이지영, 이정희 (2018). 초등장애아동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정서조절전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9(3), 443-458.
<https://doi.org/10.22143/HSS21.9.3.34>
- 임선영, 이강이 (2022).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학교만족도가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를 매개로 사교육 의존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53.
- 장우귀 (2012).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과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과 변화.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계숙, 고은경, 김민아 (2020).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awareness of educational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 mothers with young children in Korea. *아동학회지*, 41(1), 123-132.
<https://doi.org/10.5723/kjcs.2020.41.1.123>
- 정계숙, 고은경, 박희경, 차지량 (2014).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가정과삶의질연구*, 32(2), 53-75.
- 정계숙, 최은실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25-257.
- 정정화, 홍예지, 이강이 (2019).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과 영향요인 및 결과요인 검증. *인간발달연구*, 26(4), 115-138.

- <https://doi.org/10.15284/kjhd.2019.26.4.115>
 최지혜, 조혜령, 김영선 (2022).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2-3학년 시기 양육역량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자기체계역량, 학교생활 파악수준, 담임교사 상담횟수 및 사회관계망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3), 19-36.
- <https://doi.org/10.14698/jkcce.2022.18.03.019>
 홍예지, 장유진, 이강이 (2021).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유형화 및 어머니의 교육참여 예측요인 검증. *아동학회지*, 42(2), 219-231.
- Bayot, A., Hernández, J. V., & De Julián, L. F. (2005). Exploratory factorial analysis and psychometrics properties on the scale of sensed parental competencies. Version for parents (ECP-p). *RELIEVE E-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Assessment and Evaluation*, 11(2), 113-126.
- Gilmore, L., & Cuskelly, M. (2008). Factor structure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using a normative sample.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5(1), 48-55. <https://doi.org/10.1111/j.1365-2214.2008.00867.x>
- Gordo, L., Martínez-Pampliega, A., Elejalde, L., & Luyten, P. (2020). Do parental reflective functioning and parental competence affect the socioemotional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 3621-3631. <https://doi.org/10.1007/s10826-020-01840-z>
- Jackson, C. B., & Moreland, A. D. (2018). Parental competency as a mediator in the PACE parenting program's short and long-term effects on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 211-217. <https://doi.org/10.1007/s10826-017-0859-5>
- Johnson, B. D., Berdahl, L. D., Horne, M., Richter, E. A., & Walters, M. (2014). A parenting competency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4(2), 92-120. <http://doi.org/10.1080/15295192.2014.914361>
- Mohammadi, F., Rakhshan, M., Molazem, Z., Zareh, N., & Gillespie, M. (2020). Development of parental competence scale in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50, e77-e84. <https://doi.org/10.1016/j.pedn.2019.04.006>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https://doi.org/10.1080/10705510701575396>
- Stafford, R. (2019). *The Relative impact of within-cass model misspecifications on enumeration accuracy in latent profile and factor mixture model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Ward, K. P., & Lee, S. J. (2020).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ress, responsiveness, and child wellbeing among low-income famil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6, 105218.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0.105218>